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단지 자신이 점을 치는듯한 자세로 하나님을 이용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 오면 잔뜩 긴장을 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혹은 전염병이 들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와 경제가 무너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먼저 채워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해 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 자신의 세상적인 안위와 필요를 위해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뤄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아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

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비록 쫓겨 다니고 있는 신세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소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져서 그곳 사람들까지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용맹이 소문이 났지만 그러나 이 소문은 블레셋 장군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에 와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잡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 왔지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30:6).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사울이 여쭈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여쭈어 보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도와 주셔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도 내가 납득할 만한 것만 순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들 때에만 순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까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안위를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

이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여준 그대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자기 자신이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으로서 겸손하고 준수한 모습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그의 죽은 모습만이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는 통첩이 더욱 사울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분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척도이며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교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